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 고효율기기로 열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鄭長燮

최근의 유가 상승이 또다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연초 주요 선진국들에 불어닥친 한파와 미국의 석유비축량 감소로 야기되었던 유가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자 이번에는 OPEC가 2/4분기 예상되는 유가하락을 막기 위해 미리 감산을 선언하여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29달러가 넘는 높은 가격으로 유가가 치솟은 것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자국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발전용 유연탄의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에너지소비가 많아 이러한 에너지가격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앞으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중국과 아시아의 후발산업국가들이 성장하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수요 증가가 또다른 에너지가격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환경에 우리 경제가 발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에너지가격변동에 취약한 우리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에너지다소비업체의 비중이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IT와 같은 에너지 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개선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에너지소비구조를 개선해 나가면서 단기적으로 에너지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으로 에너지 가격변동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절약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절약은 결국 '티끌모아 태산'을 이루는 일이다. 그러나 기기나 시스템을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도록 효율을 높인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이렇게 기기의 효율 향상을 통한 손쉬운 에너지절약의 좋은 예가 바로 대기전력 절감이다. 대기전력이란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동안에 낭비되는 전력을 말하는데, 이렇게 낭비되는 전력이 의외로 많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력 가운데 11% 가량은 이렇게 대기전력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것은 85만kW급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맞먹는 막대한 양이다. 또한 각 가정에서 볼때도 1년에 평균 3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이러한 대기전력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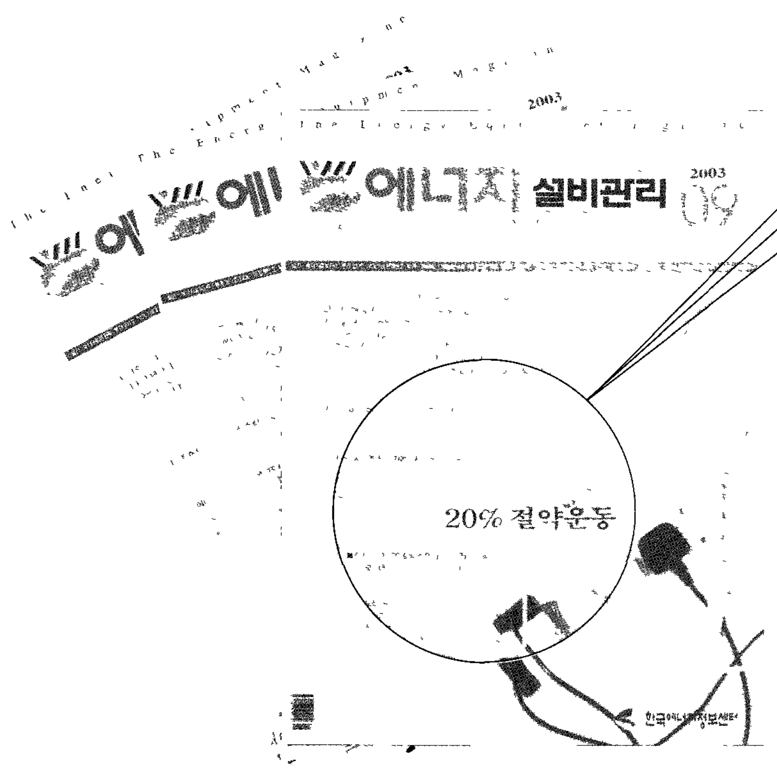
이러한 대기전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연차적인 대기전력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99년부터 대기전력을 줄인 제품에 대해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오는 201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보다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대기전력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즘처럼 에너지사용기기가 많은 시대에는 기기의 효율화가 에너지절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효율관리제도를 실시하여 가전제품, 자동차, 설비 등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관리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에너지효율의 개념을 건물에까지 적용시켜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을 신축 아파트에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살고있는 주거공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고효율제품, 고효율 건축물을 선택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OPEC 유가 담합으로 인한 고유가 사태를 겪은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매년 이러한 고유가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러나 더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잦은 고유가 사태를 겪는 동안 어느 사이엔가 높은 유가에 무뎌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자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의 이런 잦은 고유가 상황을 단지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 경제환경은 앞으로 지속적인 고유가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절약은 이러한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열쇠이자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디딤돌이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의 핵심임을 깨닫고 실천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이름
섹션잡지 에너지설비관리 탄생!
이제 에너지사용설비에 대한 관리문제는 에너지설비관리지 한권으로 해결하십시오.

에너지와 관련된 잡지는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구독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큽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에너지관리자는
에너지설비관리지 한권으로 해결합니다

정기구독 문의
T.(02)2679-6464~5
#정기구독료 캐쉬백제도 절찬 시행중#
정기구독료 3만원 돌려받자!
에너지설비관리지 구독자로서 다른 정기구독자를 유치해주시면 3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KOREA ENERGY INFORMATION CENTER
한국에너지정보센터